

#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대폭 늘었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올해 7월 말 현재 55만 5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만 3000 명보다 무려 189%가 늘어난 규모로 국제선만 놓고 보면 238%가 증가했다. 일본 노선 중단 및 감축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안국제공항 이

용객 증가 추세는 꺾이지 않은 상태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은 54만 명이었다.

전남도 이상훈 도교통과장은 11일 "최근 발생한 한-일 간 무역 갈등 등으로 일본 하늘길이 좁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은 채 큰 폭의 증가를

7월말 55만 여명 이용...전년비 189% ↑

전남도 "올해 100만명 목표 달성에 집중"

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제주항공에서 중국 장가계와 연결 노선 신규 취항을 앞두고 있어 하반기 이용객 증가세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무안국제공항은 2021년 광주 민간 공항과의 통합에 대비해 활주로 등 기반시설 확충, 대중교통 연계, 국제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 동시 추진과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이 개통되면 이용객이 대폭

늘 전망이다.

통합이후 이용객은 26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철도망이 완성되면 동부권 및 충청권 이남지역 항공수요 유입으로 국제노선 다양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과정은 '앞으로 중단 및 감축된 일본 노선을 대체할 신규노선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 올해 목표한 이용객 100만 명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비수기 켜다”

공기청정기 사계절 가전

봄가을이 대목이었던 공기청정기가 이제 사계절 가전으로 자리잡아가는 모양새다. 비수기였던 여름 판매량마저 10% 이상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렌탈 또는 판매 업체들의 지난 6-7월 제품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게는 10%, 최대 70% 가까이 증가했다.

전통적 성수기인 봄가을을 넘어, 여름철 판매가 활발해진 데는 무엇보다 인한 에어컨 사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위로 인해 실내 환기를 자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는 실내에서도 공간별 공기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고 있다. 최근 공기청정기 사용 패턴은 거실을 중심으로 대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공간에 맞춰 여러 제품을 사용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이 늘고 있는 점, 갈수록 공기청정기를 취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소비 진작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공기청정기 시장은 코웨이 등 기성 기업뿐 아니라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밀폐용기로 유명한 락앤락은 지난 3월 미니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내 공기의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공기청정기가 사계절 가전으로 자리잡는 주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기아차, 소형車 ‘베뉴’·‘셀토스’로 인도시장 공략

미국·중국 등 주요시장 수요 침체...신흥시장 개척

현대·기아자동차가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에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본격적인 시장 선전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110만 4916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감소한 수치다.

국내 시장에서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팔리세이드’ 등의 판매 호조와 ‘신형 쏘나타’ 신차 효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 증가한 20만 156대를 판매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어든 90만 4760대가 판매했다.

기아차 역시 해외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감소한 판매량을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해외 시장에서 110만 9759대가 판매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는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차종으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베뉴’를 선택했다.

지난 6월 인도에서 처음 출시된 베뉴는 출시 직후 8763대가 판매되며 인도 시장에서의 판매 실적을 견인할 모델로 급부상했다. 지난달에는 9585대 판매로 판매량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출시 60일 만에 계약대수 5만대를 돌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에서 팔리세이드 판매를 본격화하고 인도 시장에서는 베뉴의 성공

적인 시장 안착을 통해 위축된 판매 흐름을 극복하는 동시에 판매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셀토스’를 인도 시장 전면에 내세웠다. 셀토스는 지난달 16일(현지 시간)부터 시작된 사전계약 첫 날 6046대의 계약 건수를 기록하는 동시에 지난 6일 기준 누적 2만 2073대 계약을 달성하며 흥행 불풍을 예고했다.

기아차는 약 13개월에 걸친 면밀한 인도 현지 시장 분석을 토대로 인도 소비자들에게 요구하는 디자인, 특화 사양 등을 반영하는 현지화 작업을 거치는 등 인도 시장에 최적화된 셀토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셀토스를 향한 인도 시장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기아차는 인도공장에서 셀토스를 본격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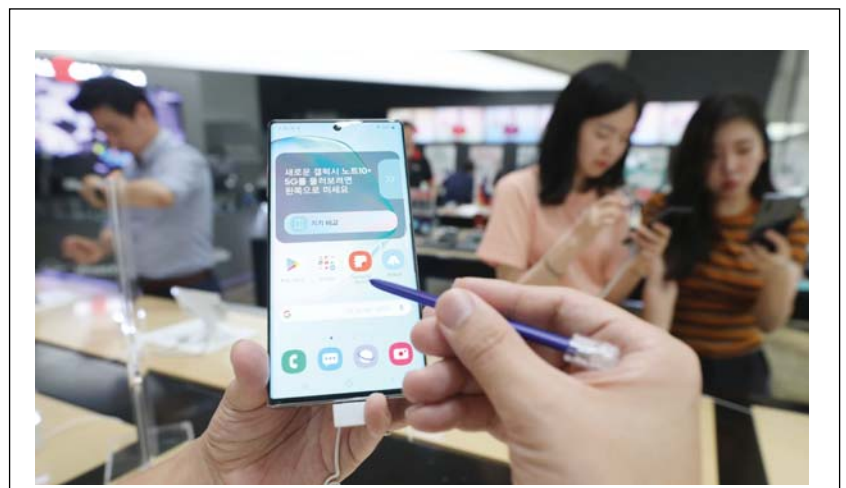
기아차는 지난 8일 인도공장에서



안드라프라데시주 주정부관계자, 신봉길 주인도대사, 심국현 기아차 인도법인장, 기자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셀토스 양산 기념식’을 가졌다.

인도 시장 진출이 처음인 만큼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인도 전역 160개 도시에 265개의 판매·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셀토스를 인도 내수 시장에서 연간 6만대 판매했겠다는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셀토스에 대한 인도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기아차 인도공장이 성공적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며 “기아차의 글로벌 성장사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인도 시장 성공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동사, ‘갤럭시 노트 10’ 사전예약 ‘순항’ “10명 중 7명 노트+ 찾아”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 5G’ 사전 예약이 전작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지난 9일부터 전국인근 대리점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갤럭시 노트 10’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사전예약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개통은 20일에 이뤄진다. 정식 개통일은 23일이다.

10일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작인 ‘갤럭시 노트 9’ 보다 반응이 좋다. 2년 약정의 ‘갤럭시 노트 8’ 교체 시기가 도래하면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다”며 “노트 10과 노트 10+ 판매 비중이 3대 7 수준으로 큰 화면을 선호하고 있다. 색깔은 블랙과 화이트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블루, 블랙, 화이트 등 골고루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6.3인치 갤럭시 노트 10 5G는 256GB 단일 용량으로 아우라 글로우, 블랙, 핑크 레드 등 4가지 색상이다. 출고가는 124만 8500원이다. 6.8인치 노트 10+ 256GB 모델은 아우라 글로우, 블랙, 화이트, 블루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출고가는 139만 7000원이다. 512GB 모델은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블랙 등 2가지 색상으로 149만 6000원이다.

또 다른 이동사 관계자 역시 “노트는 충성도가 있는 모델로 큰 화면과 세로위진 S펜에 관심을 보이며 초기 반응은 좋은 상태”라며 “사전예약 첫 날에는 전작인 갤럭시 노트 9와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흥행 여부는 주말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 3사는 하반기 노트 10만큼 흥행을 보장하는 모델을 찾기 어려운 데다 점유율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반기에는 갤럭시 A90, 갤럭시 폴드, LG전자의 V50 씽큐 후속 모델 등이 출시될 예정이

지만 노트 10처럼 충성도가 높은 모델은 흔치 않다.

특히 노트 10 고객은 5G 점유율에서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5G 가입자는 133만 6865명이다. 점유율은 SK텔레콤(53만명) 39.7%, KT(42만명) 31.4%, LG유플러스(39만명) 29% 순이다. 기존 5:3:2 점유율은 5G에서 4:3:3으로 바뀌었다. 업계에선 지난달 말 기준 5G 가입자가 180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2위를 놓고 자리 싸움을 치열하다. SK텔레콤 역시 기존 시장 점유율보다 뒤지고 있는 만큼 5G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SK텔레콤은 ‘노트 10+ 아우라 블루’ 컬러를, KT는 ‘갤럭시 노트 10’의 아우라 레드 컬러를 단독 출시하며 컬러 마케팅에도 나섰다.

다만 갤럭시 노트 10과 V50 씽큐에 이어 세 번째 5G폰인 테다스마트폰 사양의 상향 평준화로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행을 가능하게는 쉽지 않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갤럭시 노트 10 판매량은 950만대로 2018년 갤럭시 노트 9(약 967만대)와 유사할 전망이다”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보급형 중심의 판매 성장 추세로 프리미엄 영역에서 판매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브랜드 제고, 5G 폰의 초기 시장 선점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시지원금을 놓고선 개통 직전까지 이동사 간 눈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S10은 개통 당일 공시지원금이 최대 54만 6000원, V50 씽큐는 77만 3000원으로 포문을 열었다. 갤럭시 10 예상 지원금 규모는 SK텔레콤 최대 42만원, KT 최대 45만원, LG유플러스 최대 43만원 수준이다. 예상했던 ‘지원금 대란’ 우려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제 871회차 당첨결과 (2019년 8월 10일 추첨)

2 6 12 26 30 34 + 38

순위	당첨계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7	2,718,071,358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1	51,984,972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 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231	1,421,374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8,666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792,357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준 : 지급계시일로부터 1년, 휴일일 경우 익일연일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